

큰 지혜와 용기를 뜻하는 불교의 ‘忍’

- 보살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이치를 알아 세상의 모든 것에 안주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. 無生法忍이 바로 앞에서 말한 체찰법이다.
- * 無生法忍 : 불생불멸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
- 이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바깥세상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. 다양한 환경에 간섭받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.
- 진정한 不動과 진정한 超越은 죽은 생명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별의 현상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고, 궁극의 차원에서 ‘부동’을 행하는 것은 갖가지 현상을 분별할 줄 알고 분별심 없이 그것들을 대한다는 뜻이다.

죽음과 질병, 고통, 실패를 담담하게 바라보라.

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용기에 의지하라.

자신 이외 그 어떤 것도 해결 방법을 찾아 주지 않는다.

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마음은 번뇌만 부른다.